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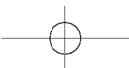
횡성문화

통권 제25호
2010

www.hs-culture.or.kr



횡성문화원





문화 비 전 선 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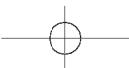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횡성문화원장
김 광 수

Publication

발 간 사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산업시대의 큰 풍조 속에서, 그보다도 더 귀중한 정신과 문화적 가치에 관한 소중함을 몰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때에 “횡성문화”를 통해 횡성의 가치와 얼을 담아 널리 알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큰 기쁨이자 문화원의 더 큰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횡성문화원은 우리 고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중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횡성은 임진왜란의 항일 의병 활동과 일제시대의 4.1만세운동을 거쳐 한국전쟁의 피나는 격전에 이르기까지 갖은 저항의 불씨를 끊임없이 태워왔고, 그 정신은 우리 횡성군민들에게 아직도 남아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횡성은 국난 극복의 중심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국토의 중심, 청정산업 녹색성장의 선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횡성문화」 발간은 바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 우리 고장의 고유 정체성을 찾는 작은 노력입니다. 이제 우리 횡성군민들은 우리 고장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것에 대해 어떤 궁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출발선상에 다시 서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와, 정신과, 얼을 드높이고 군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횡성문화원은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찾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축 사



횡성군수
고석용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횡성문화”는 횡성의 향토문화지로서 유일하게 맥을 잇고 있습니다.

「2010 횡성문화」는 많은 군민들의 관심 속에 발간되었습니다.
김광수 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집필에 참여하신 모든분들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횡성문화원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심어주는 노력을 해 오셨고 지방의 경쟁력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성장
의 든든한 밑바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장되지 않고 더욱 더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횡
성의 역하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꽂찌
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횡성문화”는 군민들에게 문화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 전
통문화를 계승하는 전령사로서, 그리고 횡성의 맥과 얼을 되살리는 소중한 문
예지로서 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횡성문화원이 전통문화를 찾아내고 그 바탕위에 새로운 문화
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횡성문화” 향토지가 향토문화에 대한
갈증과 우리군의 소중한 사료로서 군민들 마음에 전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
며 다시한번 발간에 애쓰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군의회 의장
정명철

Congratulatory
Message

축사

역사와 문화의 우리 고장을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수 있는 「2010 횡성문화」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장의 뿌리를 찾고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광수 횡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문화가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화란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고유문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민족 구성원들이 터를 잡고 있는 향토사에서 기인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사 속에 우리 횡성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횡성문화」의 발간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어가야할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번 「2010 횡성문화」의 발간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미래의 지혜를 찾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들이 대대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횡성에 대한 사랑과 역사의식을 움트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횡성문화」의 소중한 기록들이 우리 군민의 가슴속에 드높은 자긍심을 일깨워 향토사랑을 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Contents

2010횡성문화 | www.hs-culture.or.kr |

발간사 | 김광수

축 사 | 횡성군수, 횡성군의회 의장

- 횡성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 허남진 | 2

I. 향토문화의 숨결



- 태기왕의 꿈과 맥국 | 정호완 | 10
- 애국지사 강성순 재조명 | 박순업 | 23
- 어머리와 아리랑에 대한 문화적 분석 | 박관수 | 31
- 복술들의 귀신관에 대하여 | 손보경 · 윤재원 | 73

II. 향토문화탐방



- 횡성에서 술을 빚는 분들을 만나다 | 이영식 · 진광수 | 110
- 희망의 소리 두드레 모듬북 | 박현숙 | 115
- 다름이 하나 되는 세상 | 우광수 | 120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 内侍가 된 황소 | 권용환 | 126
-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로 선진국으로의 지름길 | 윤병철 | 138
- 강원도 횡성에도 태종대가 있다! | 김동정 | 143
- 박각시나방에 대한 고찰 | 한상균 | 149
- 인연 “횡성사람으로...” | 안희연 | 158
- 어머니는 왜 모르는게 없으실까? | 원재성 | 161



IV. 지역문화 학습정보

- 예절과 우리문화 실천하고 아름답게 꽂피워야 한다 | 김인규 | 166
- 한학교실 야외수업이 있던 날 | 이효자 | 170
- 진정한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 가와바따 후미꼬 | 173

V. 문예마당

- 문화유적지 답사(단양군) | 서제원 | 178
- 문화유적지 답사(관내) | 권아람, 유정환 | 185
- 한시 “축강통관아복원” | 정병유 | 190
- 수필 “알범” | 정민철 | 191
- 시 “한우곰탕” | 서강구 | 196
- 시 “낙엽” | 김은주 | 197
- 동시 “우리엄마” | 이하은 | 198
- 산문 “매일 매일 받을 수 있는 사랑” | 이정은 | 199

VI. 문화원소식

- 2010년 문화사업 실적 | 202
- 문화원 회원명부 | 214

횡성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 허 남 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겸 제작총괄

1985년으로 기억된다. 정치부 기자로 국회를 출입할 때다. 병환으로 숨진 金祿永 국회부의장(신민당) 장지에 취재차 따라갔었다. 장지엔 金永三·金大中·李敏雨씨를 비롯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전송했다. 金大中씨는 미국 망명에서 막 돌아왔을 때였다. 문상객들은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한 고인의 유지를 기리며 민주화 투쟁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장례는 그만큼 엄숙하고도 비장하게 치러졌다.

가족들의 오열속에 下官이 이뤄지고 회다지 절차가 진행됐다. 기다란 장대를 하나 씩 든 달구꾼 6~7명이 노래를 부르며 무덤의 흙을 다지는 작업이다. “어허라~ 달쿠 웅~” 선소리꾼의 구성진 사설과 달구꾼들의 ‘어허라’ 합창이 이어졌다. 느렸다 빨라지고, 빠르다 느려지는 가락에 맞춰 달구꾼들은 춤을 추듯 경중거리며 흙을 다져 나갔다. ‘슬픈 축제’라고나 할까. 이들의 노랫가락과 울동은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흥겨웠다. 묘한 올림이다.

한참을 소리와 울동에 빠져있다보니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낯익은 울동이고 귀에 익은 가락임이 분명했다. 어디서 봤던가? 기억의 갈피를 뒤지다 무릎을 쳤다.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구나. 그 때 듣던 그 가락이요, 그 몸동작이다. 인솔자를 찾아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강원도 횡성이란다. 역시 그렇구나. 어릴

때의 장면들이 내 몸속 한구석에 肉化돼 DNA속에 녹아 있었구나. 너무나 반가워 취재도 잊은 채 인솔자 어르신과 한동안 횡성과 회다지노래를 이야기했다.

달구꾼들은

그 전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분들이라고 했다. 처음엔 의아했다. 장례의식이라면 아무래도 께름칙하기 마련인데 그게 어떻게 민속예술에 해당되는지 잘 이해가 안됐다. 그러나 신명이 더 해가는 회다지판을 찬찬히 지켜보며 이거야말로 우리 민중들의 애환이 농축된 종합예술이구나 하고 감탄하고 말았다.

느리면서도 구성진 소리 속엔 헤어짐의 애달픔이 묻어났다.

빠른 곡조와 신명난 발구름에는 이승의 고달팠던 삶을 훌훌 털고 저승에선 極樂往生하시라는 남은 자들의 염원이 담긴 듯 했다. 떨랑거리는 종소리와 반복되는 후렴 '어허라 달쿵'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켜주는 천상의 신호음처럼 들렸다.

죽음 또한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한 옛 민초들의 철학적 思惟의 산물이 회다지소리다. 그 가락과 율동속엔 민중들의 땀과 눈물이 질게 배어나왔다. 그렇다. 친숙함과 장중함이 어우러진 이 의식이야말로 잘 짜여진 한편의 뮤지컬이 아니겠는가.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면서 감히 뭐라 평하는 게 어쭙잖긴 하지만 문외한 나름대로 얼핏 스치던 단상이었다. 선소리 가사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봤다.

別離의 예식을 예술적 경지로 승화시켜온 횡성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고,

이를 한편의 민속예술로 완벽하게 재구성해낸 회다지팀들의 혜안과 노고 또한 범상치 않다. 사실 급변하는 세태의 흐름을 감안하면 회다지소리 역시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으리라. 火葬문화가 빠르게 퍼지는데다 장례의식 또한 간소화 추세여서 埋葬을 하더라도 예전같은 회다지작업은 거의 생략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회다지팀들이 아니었다면 어디서 그런 구성진 옛 가락을 다시 들을 수 있었겠는가. 이젠 어엿

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됐고, 매년 회다지 축제까지 열린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횡성에서 태어나 잔뼈가 굵은 횡성출신들에게 특히나 반가운 일이다. 횡성의 얼과 문화를 멋들어지게 재현해낸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 * *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외형적 규모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났고 문화의 질과 품격으로 경쟁하는 시대라는 의미다. 문화의 시대엔 컨텐츠가 중요하고, 컨텐츠의 특실함은 스토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스토리가 담긴 제품이 경쟁력이 있듯 문화 역시 탄탄한 스토리로 무장할 때 빛을 발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횡성을 주목하게 된다. 빼어난 산세에다 풍족한 냇물 자체가 훌륭한 스토리의 소재인데다 三韓과 三國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배경 또한 술한 사연들을 품고 있다. 그 뿐인가. 손바닥만한 논밭에 기대 살아온 횡성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이야말로 한국 산골 농촌의 가장 전형적 모습이다. 횡성의 산과 강, 둔덕과 골짜기, 논두렁 밭두렁,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는 험난한 세파를 헤쳐 온 한국 民草들의 삶의 원형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다.

혹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만날 수 있는 공통된 모습을 갖고 웬 호들갑이냐고 눈을 흘길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횡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단견일뿐이다. 횡성사람들은 말투부터가 독특하다.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횡성사람들끼리는 횡성말이란 걸 금방 알아챈다. 충북사투리와 비슷하나 똑같지는 않고, 정선 태백쪽 사투리와도 다르다. 횡성말속엔 특유의 鼻音이 섞여 정겹게 느껴진다. 특히 여자들의 말은 착착 감겨드는 맛이 남다르다. 횡성의 말이 특색이 있듯 횡성 자체가 다른 지역과는 전혀 색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발굴해내지 못할 뿐이다.

횡성은 지정학적 위치도 예사롭지 않다.

백두산에서부터 출발하여 동해안을 숨 가쁘게 달려내려 온 백두대간은 태백산·소백산에서 내륙으로 방향을 틀어 지리산까지 이어진다. 한반도의 척추다. 그 척추가 휘어진 바로 안쪽에 소담스럽게 자리한 게 횡성이다. 마치 척추가 소중하게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한반도 호랑이지도를 보면 포효하는 호랑이의 옆구리쪽이다. 간·신장·췌장 등 내장의 중요 부위가 자리한 위치다. 횡성은 한반도의 핵심 요충지인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횡성은 백두대간에서 가지 쳐 수도 서울로 이어지는 한강기맥의 종주 지역에 해당된다. 오대산·계방산으로 갈라져 나온 한강기맥은 횡성의 태기산(또는 덕고산)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그리곤 봉북산·운무산·발교산·오음산·삼마치고개를 넘어 성지봉까지 횡성북서부 지역을 한 순배한다. 성지봉에서 횡성과 작별을 고한 한강기맥은 서쪽으로 갈기산·용문산을 거쳐 양수리 두물머리까지 내닫는다. 태기산은 별도의 영월지맥을 새끼친다. 둔내·안흥 등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매화산·치악산·감악산을 거쳐 영월 태화산에서 남한강으로 스며든다.

한강기맥과 영월지맥 사이론 섬강이, 영월지맥 남쪽으로 주천강이 휘돌아 흐르며 횡성 들판을 풍요롭게 적셔준다. 두 강 모두 태기산의 횡성쪽에서 발원하여 길을 달리하다 남한강에서 다시 만난다. 냇물이 동에서 서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횡성의 본디 이름은 橫川이었다.

백두대간의 정기를 산맥과 물길에 띄워 수도 서울에까지 전달하는 주요 원천중 하나가 횡성인 것이다. 지금도 동서남북 교통의 요충지지만 횡성은 오랜 옛날에도 동해 해산물과 산간의 특산물이 대처로 나가고 도회의 일용품이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배로, 달구지로, 등짐으로 이어지는 東西간 유통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높은 산과 아름다운 강이 어우러진 횡성은 그 자체가 웅장한 한 폭의 산수화나 다

름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별빛보호지구로 지정될만큼 티끌없는 밤하늘 또한 일품이다. 그 산수화안에 물류의 흐름에따라 개미처럼 헤집고 다닌 옛사람들의 땀과 발자취까지를 그려넣는다면 수백, 수천의 대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효석의 명작 ‘메밀꽃 필 무렵’ 무대가 바로 횡성과 평창 일대의 보파리장수 길이다. 세월속에 묻혀있는 무진장의 스토리. 역사적 사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의 기막힌 사연들 또한 캐내고 가공하면 귀중한 보석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태기왕은 어찌하여 이토록 험악한 태기산까지 쫓겨와 마지막 둉지를 틀었을까? 신라의 자장대사는 어떤 연유로 이곳까지 흘러들었고 어떤 계시로 봉복사를 건립한 것일까? 원천석선생은 왜 치악산 강림면까지 스며 들었고, 제자 태종은 어떤 경로로 그를 찾아왔을까? 태종은 치악산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풍수원은 왜 박해를 피해온 천주교도들의 은신처가 됐을까? 그들은 무얼 먹고 어떻게 생활했을까?

이런 슬한 의문들 하나하나가 모두 미완의 스토리다. 그런 의문들에다 횡성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대입하여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그게 바로 대하 소설이다. 거대 담론이 아니라도 좋다. 횡성사람들은 막장을 즐긴다. 칼국수나 수재비에도 막장을 풀어 끓인다. 서울시내 칼국수집을 뒤져보라. 횡성식 장칼국수는 어디에도 없다. 혹 그런 집을 아는 사람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란다. 당장 달려가고 싶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 막장 맛을 모르면 횡성 사람이 아니라고. 막장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고, 왜 유독 이 지방에서만 펴졌을까? 이처럼 천천히 둘러보면 횡성 고유의 스토리들이 수두룩하다.

“어여! 어여여여! 이눔의 소가 오늘은 왜 이리 힘이 뻔친다냐. 숲밖에 사는 과부를 봤느냐. 어히여~. 옳지! 얼씨구~.”

지금은 듣기 어렵게 됐지만 옛 어른들의 소몰이소리를 떠올려 보시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횡성 사람들의 소몰이소리를 듣곤 “별나게 시끄럽다”고 말하던 기억이 난

다. 바로 그 유별난 ‘시끄러움’이 횡성의 소리다. 논이나 밭을 갈며 뚜벅뚜벅 걷는 소랑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불러가며 쉴새없이 목청을 돋운다. 우리 횡성사람들 귀엔 익숙한 그 소리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겐 생소하게 들렸던 것이다. 그런게 횡성 특유의 소리이자, 횡성만이 갖고 있는 횡성 스토리의 원천이다. 옛 소물이소리를 재현해낸다면 이 또한 훌륭한 전통문화유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보니 소가 효자다.

최근 횡성은 횡성한우가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횡성한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키워낸 관계자들, 축산농민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는 모르지만 마케팅 성공의 배경엔 청정지역 횡성이란 지역적 이미지도 크게 한 몫 했으리라고 여겨진다. 얼마 전 횡성군내 한우수가 인구 수보다 많아졌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젠 횡성의 주인은 소가 됐네.” 하고 웃었다.

내친 김에 횡성한우 박물관을 대규모로 지어 한우축제를 가을 한차례만 열게 아니라 연중 축제로 열면 어떨까. 소와 인간사이에 맺어진 관계의 역사서부터, 전세계 소이야기, 소 그림 또는 사진 전시관, 어린이 소타기 놀이, 소싸움 등. 그리고 한쪽 편에 소 시식마당을 연결시키면 볼거리 놀거리에 먹을거리까지 갖춘 종합 레저타운이 되지 않을까.

하나 더 욕심을 부리자면 횡성한우 브랜드를 국내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일본의 와규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한우 브랜드로 키워 수출하는 거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횡성한우를 키워낸 저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 * *

예부터 ‘아비 이름 멸치는 건 자식 놈 發明하기 나름’ 이란 말이 있다.

여기서 發明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업적을 들춰내 널

리 알린다'는 의미다. 과거엔 후손들이 집안 선조들의 생전 발자취를 정리해 책으로 내는 일이 많았다. 그 때 조상의 훌륭한 업적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엮어내느냐, 즉 *發明* 솜씨에 따라 세상에 조명되는 조상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조상의 업적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걸 찾아내고 포장하여 내놓는 후손들의 *發明* 역량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자면 훌륭한 업적을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며, 발굴한 업적에다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창조적 솜씨가 뒷받침돼야 한다.

횡성 특유의 스토리도 마찬가지다. 특유의 스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작품으로 엮어내는 작업 또한 발명이다. 다행히 횡성 사람들은 이 *發明* 역량이 뛰어나다. 앞에서 언급한 회다지소리가 좋은 예다. 무심하게 흘려버릴 수 있는 장례절차에서 민속예술적 가치를 발견해낸 그 안목이 대단하다. 또한 그 속에서 울동과 소리를 낚아채 하나의 작품으로 엮어낸 솜씨도 탁월하다. 이러한 *發明* 솜씨가 그 이후론 활발하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상할 정도다.

횡성사람들에게 잠재돼 있는 이 발명역량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새로운 횡성스토리, 새로운 문화컨텐트가 무궁무진 개발되리라 확신한다. 횡성이 풍부한 스토리로 새 단장하는 날, 횡성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 명소가 돼 있을 것이다.

- 필자는 횡성문화원 허명구 초대원장님의 차남이십니다. -